

올 여름 '마린걸스' 매력에 흠뻑 빠져보아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시원한 이벤트 풍성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있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가대표 출신 미녀들이 펼치는 수중 싱크로나이즈 '마린걸스' 공연에 객석에 눈이 내리는 깜짝 파티 등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 층 업그레이드 된 '마린걸스'는 더욱 화려해진 의상과 안무로 관광객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연이 절정에 오를 때 객석에 하얀 눈이 내리는 스노우파티가 시작된다. 마린걸스와 함께 가장 신나게 댄스를 즐기는 고객에게 시원한 망고빙수도 제공한다. 스노우파티는 매일 3차례,

오후 1시20분, 2시 20분, 4시 20분에 대형 메인수조 앞에서 펼쳐진다.

비다사자들의 흥미진진한 대결도 펼쳐진다. 아쿠아리스트와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호흡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공연 중간 관객이 직접 참여해 바다사자들의 묘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관객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또 아쿠아 플라넷에서는 8월 한 달 간 재간동이 참물벌, 바이칼물벌, 바다사자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 이벤트,

도 마련했다.

정진석 팀장은 "신나게 아쿠아리움을 즐기면서 퀴즈를 풀다 보면 어느새 동물박사가 된다"며 "다양한 이벤트도 즐기고 경품도 탈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신나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이벤트소식과 할인정보는 아쿠아플라넷 여수 홈페이지(<http://www.aquaplanet.co.kr/yeosu>. 061-66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청희기자 chkim@

'정남진장흥 물축제' 무더위 날렸다

7일간의 잔치 성황 속 막 내려

여름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수익금 6천만원 유니세프 기탁

지난 7월 26일 개막해 7일 동안 장흥 진장흥변을 뜨겁게 달궜던 '제6회 정남진장흥 물축제'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막을 내렸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정남진장흥 물축제에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연일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감동의 합수식을 시작으로 지상 최대 물싸움, 맨손 물고기잡기 등은 축제의 백미로 자리 잡았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전 드림팀, 수상자전거, 오리보트, 희망의 줄배, 팻목 타기, 물 미끄럼틀 슈퍼슬라이드, 대형 수영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족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여기에 복지체험관, 향토산업관, 힐링문화체험관, 물과학관 등에서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특별 주제 전시·체험으로 축제의 깊이와 가치를 더했다는 평가다.



장흥 물축제 최대 인기관인 '세계음식관'의 인파. 8개국 15개 음식이 선보인 세계음식관에는 연일 2000여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불ว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장흥군 제공>

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함으로써 나눔의 물축제를 다시 한번 알리며 풍성했던 물축제를 의미있게 마무리했다.

이명희 장흥군수는 "전남도 대표 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정남진장흥 물축제는 올해도 탄탄한 운영으로 관광객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내년에는 더욱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또한 장흥의 대표 명소인 우드랜드에는 축제 기간에 더욱 많은 사람으로 불빛과 숲 속 음악회에 많은 사람이 박수치며 흥겹게 어울려 '화합과 평화'라는 물축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전통총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고 전국 동네밴드 경연대회, 전국 대학생 뮤지컬 갤라 콘서트 등 꿈과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전국 단위 대형 경연대회도 열렸다.

장흥군은 이날 물축제 운영수익금 6000만원을 유니세프(Unicef)와 전

진군은 향토음식관을 통해 강진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에 앞서 통일된 앞치마와 모자 등 유니폼을 지급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파주에서 온 김현정(여·39)씨는 "청자축제장의 깔끔한 시설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상깊다"며 "특히 향토음식관의 친절한 서비스와 청자 5구 복합찬기 등은 다른 지역 축제장에서는 볼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만족해 했다.

'화순 도장리 밭노래'

'화순 우봉리 들소리'

전남무형문화재 지정

화순군은 1일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화순 도장리 밭노래'와 '화순 우봉리 들소리'를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오는 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1호인 화순 도장리 밭노래는 전남 내륙 산간지역 여성들이 밭매기 하면서 공동으로 불렀던 노동요로 화순군 도암면 도장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54호인 화순 우봉리 들소리는 춘양면 우봉마을 주민들 사이에 전승되는 농요로, 영산강 지류인 이석강 유역에서 부르는 들소리라는 점에서 영산강 들노래 권역에 해당된다.

지난 2008년 전남도 주관 남도문화재에 화순군 대표로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의 향토문화유산 2건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돼 의미가 깊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해 지역의 민속예술과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양 마동중 교과부 설립 승인

21학급 2015년 개교

광양시 중마동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칭)마동중학교 설립 안건이 최근 교육부 투용자 심사를 통과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중앙 재정부·융자 심사'에서 마동중학교에 대한 설립을 확정해 중마동 지역의 중학생 과밀 현상을 해소하게 됐다.

마동중학교 문제는 중마동 지역 공동주택 추가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과대·과밀 학급 해

소를 위해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우윤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재정 투용자 심사 통과를 위해 교육부측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마동중학교 설립이 교과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33억원을 투입해 21학급 규모로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에 나서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영암 특산물 무화과 조형물 설치

화과의 자세를 형태로 표현했다.

영암군은 2억여원을 들여 7개월 동안 완공한 조형물을 지역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무화과가 영암의 명품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무화과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영암군민의 미래에 풍성한 무화과처럼 풍요의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